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와 기능 및 자아존중감*
The Structures and Functions of Social Support for Adolescents
from Non-Parental Seniors and Adolescents' Self-Esteem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부교수 이완정**

Dept. of Consumer, Child & Family Studies, Inh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Lee, Wan-Je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nature of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intimate and important people in their lives who are seniors to them. A sample of 1,220 adolescents was surveyed with a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included questions on perceived support from non-parental senior figures as well as on adolescents' self-esteem.

The results showed that: (a) Adolescents perceived their relatives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ir teachers. (b) Male adolescents perceived support from a larger number of relatives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whereas female adolescents perceived more support from their close senior figures than their male counterpart. (c) Adolescents' perception of support was different by their father's occupational status. (d) Overall, male adolescents's self-esteem was higher than female adolescents. The adolescents whose fathers held higher-status occupations had higher self-esteem than the adolescents whose fathers held lower-status occupations. (e) Male adolescents' self-esteem was affected by their GPA, father's occupational status, and the number of seniors whom they met on internet, and the amount of perceived support. Female adolescents' self-esteem was affected by father's occupational status and the amount of perceived support.

▲ 주요어(Keywords) :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주변연장자로부터의 지지(support from non-parental seniors), 사회적 지지의 구조(social support structures), 사회적 지지의 기능(social support functions), 청소년의 자아존중감(adolescent self-esteem)

I. 서론

개인은 전 생애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발달한다. 주변의 타인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지는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과 순조로운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져 왔다(구자은, 2000; 노미순, 1999; 이경주, 1997; Bachanas 외, 2002; Calsyn & Winter, 2002; Demaray & Malecki, 2002;

Esposito & Clum, 2002). 근래 Benjamin 등(1994)과 Beam 등(2002)은 아동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사회적 지지망이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들은 지지의 근원을 여전히 부모, 또래, 교사에게서만 찾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이 아동기를 벗어나면 자신의 환경에 대한 탐색을 보다 능동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이에 따라 청소년은 아동기보다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과 개인적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였다. 즉 아동기에는 잘 아는 성인이나 부모가 인정된 사람들과만 접촉하는데 비해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제한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상호작용 할 사람을 더 넓은 범위에서 찾게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심리적 건강성(resilience)에 관한 연구들

* 본 논문은 2001년도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NHA-22101-01)

** 주저자 : 이완정(E-mail : wanlee@inha.ac.kr)

(Luthar 외, 2000; LeBuffe & Naglieri, 1999)에 의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에 성공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가족 외의 성인에게서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Beam, Chen, & Greenberger, 2002; Zani, Cicognani, & Albanesi, 2001; Benjamin 외, 1994)에서 부모 외의 연장자는 '자신보다 연령이 높은 사람들(older adolescents and adults)'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여기에는 자신보다 연장자인 친척, 학교 및 동아리의 선배, 학교 및 학원 교사와 인터넷에서 접촉하는 연장자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구조적 특성이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서 혹은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서 사회적 지지를 받는가를 의미하고, 기능적 특성이란 주고받는 사회적 지지의 내용적 측면으로서 선행연구(이난영, 2001; 윤미숙, 2000; 노미순, 1999)에서는 이를 정서적지지, 평가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로 나눈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을 연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서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지는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응답자에 따라 지지를 지각한다고 응답하는 사람의 수를 적극적으로 많이 제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소극적으로 적게 제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사람의 수를 일정 수 이내로 응답하게 한 후 응답자와의 관계에 따라 분류해보는 방법이 사용된다(오현숙, 2000; 이주연, 2001). 청소년의 주변 연장자 중 선배는 비고츠키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청소년 자신보다 연령이 높은 유능한 또래로서 청소년의 문제해결능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Wentzel & Watkins, 2002), 비행청소년은 또래나 후배에게 문제행동을 부추기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양돈규, 1998; Demaray & Malecki, 2002). 일반적으로 사촌형제자매, 조부모를 포함한 연상의 친척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사회적 지지의 근원으로 작용한다(오현숙, 2000; 신애현, 1998; Maran & BuBois, 2002). 요즘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은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주연(2001), 김지형(2002)의 연구에서는 통신중독 경향이 있는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부모, 교사, 친구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미숙(2000)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가장 상관이 높은 것은 정서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미순(1999)의 연구에 의하면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직업교사로부터 본인의 능력과 행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평가적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높아졌다. 또한 이난영(2001)의 연구에서 비행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지지의 지각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o와 Lee(2001)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홍콩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또래보다 정보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 컴퓨터 사용시간은 정보적지지

지각의 정도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래 청소년의 컴퓨터 사용이 일상화된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주변 연장자 관계망에 인터넷에서 만나는 지인을 포함시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은 이들의 성별과 가족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 Bryant(1985)의 연구에서 남자는 여아보다 더 확장적인 관계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현(1996)은 이를 남자는 여아보다 포괄적이고 확대된 관계망을 추구하는데 비해 여자는 대인관계에 보다 더 민감하고 애착적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와 비교하여 이경주(1997)의 연구에서 남자는 여아보다 사회적 지지를 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 청소년의 경우 가족변인에 따라 사회적 지지지각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데 비해 남자 청소년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과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물질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과 가정의 소득수준 외에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사회적지지 지각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추론되나 연구된 바 없다. 근래 홍두승과 구해근(2001)은 직업계층을 상류계층에 해당하는 중상계층, 학력수준이 높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화이트칼라를 포함하는 신중간계층, 대개 학력수준이 낮으나 재산이 많은 구중간계층, 그리고 노동자를 포함하는 근로·도시하류계층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한 바 있다. 이들 직업계층군은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론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도구화된 변인이므로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일정 부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외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론되나 이에 대한 선행연구 역시 없는 실정이다.

한편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아개념(Calsyn & Winter, 2002; Demaray & Malecki, 2002), 정체성(이주연, 2001), 자기효능감(박진아, 2001), 문제해결력(Esposito & Clum, 2002; Wentzel & Watkins, 2002) 등에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오현숙, 2000; 윤미숙, 2000; 신애현, 1998; Maran & DuBois, 2002)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지지 지각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만 모두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근원을 부모, 교사 및 또래로 국한하여 연구하는데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근원을 부모나 또래 외에 친척, 선배, 교사 등 주변 연장자로 확대시켜 탐색하고자 하는 바 이들 주변 연장자로부터의 사회적지지 지각 역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리라 추론된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자아존중감 척도를 개발한 이래 국내 연구(오현숙, 2000; 윤미숙, 2000; 신애현, 1998)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constant)'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Baldwin과 Hoffmann(2002)은 7년간의 종단자료에서 자아존중감의 내적 발달을 분석해본 결과, 청소년

기 자아존중감은 연령, 성, 생애경험, 가족응집력 등 관련 변인에 의해 변화가 큰 매우 역동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성별에 따라 남아와 여아의 자아존중감은 유의하게 달라서 청소년기 내내 남아의 자아존중감이 여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학교에서 여아는 지적 성취에 근거하여 평가받는 데 비해 남아는 적극적 태도에 근거하여 평가받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사회적지지 지각의 영향력을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으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외의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이 청소년의 성별, 연령, 아버지의 직업계층과 같은 배경변인에 따라 다른지 분석해 보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은 개인적 변인과 생애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주장에 주목하여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배경변인과 주변 성인으로부터의 사회적지지 지각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범위가 아동기보다 확장되고 이것이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주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

- 조적, 기능적 특성은 어떠한가?
- 2.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다. 연구대상을 표집하기 위해 3단계 층화방식에 의한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아파트시세표에 근거한 거주지계층에 따라 서울은 강남과 강북으로, 인천은 중상지역(남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과 중하지역(동구, 서구, 중구)으로 층화하였다. 서울과 인천의 인구수 및 자료의 일반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울과 인천의 표집비율은 2:1로 하기로 하였다. 2단계에서는 지역별 표집 대상 학교를 선정하였는데, 이 단계에서는 분석을 고려하여 1단계의 지역별로 학교계열, 성별, 학년을 고려하여 모두 21개 학교를 선정하였는데 중학교의 경우 모두 일반계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와 실업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중학교 7개 학교, 고등학교 14개 학교

<표 1> 조사대상 지역의 배분과 회수율(회수/배부)

도시	계열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회수율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일반계	강남	BD중 (31/40)	SH중 (42/42)	BD중 (32/40)			SH중 (41/42)			H고 (40/42)	Y여고 (45/45)	H고 (32/42)	Y여고 (45/45)	89.4% (347/388)
		강북	O교 (31/35)		JP교 (70/74)		JP교 (23/37)		SS교 (34/37)	SS교 (47/52)			SI교 (27/41)		87.7% (316/360)
	실업계	강남	해당없음								SK 공고 (33/40)	SD 여상고 (37/37)	SK 공고 (37/40)	SD 여상고 (51/51)	94.0% (158/168)
		강북	해당없음						SDK 공고 (32/32)	JH 여상고 (27/27)	SDK 공고 (30/32)			JH 여상고 (41/42)	97.7% (130/133)
	인천	일반계	중상				SIC 여중 (40/42)	OR교 (84/90)		D고 (34/42)	I고 (40/40)	D고 (34/47)		BM 여고 (42/42)	90.4% (274/303)
		실업계	중하	해당없음						ICK 공고 (38/40)	BW 여공고 (37/37)	ICK 공고 (40/40)	BW 여공고 (47/47)		
전체													91.5% (1387/1516)		

로 표집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결정한 21개 학교에서 각각 조사협조가 가능한 학급을 1학급 내지 2학급 선정하여 학급의 모든 학생들에게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의 설문지 배분 현황과 회수율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료의 수집을 위해 선정된 학급의 담임이나 학교의 관리자에게 의뢰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설문지를 주의 깊게 읽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제작을 위해 두 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쳤는데 먼저 5명의 중·고등학생과 2명의 교사에게 학교 학생들의 생활, 설문지 응답 태도 등에 대해 문의하여 학생들이 응답하기 수월하도록 설문지를 편집하였다.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두 학급 학생들에게 설문지의 질문내용이 명료한지에 대해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결과에 따라 설문지의 수정절차를 거쳐 최종 편집을 완료하였다. 회수된 1386부의 설문지 중 부실 응답된 것과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을 묻는 9문항에 한 문항도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하고 1220부를 자료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료의 분석대상이 된 청소년의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43%, 여학생이 57%였으며, 학년별 분포는 중학생 보다 고등학생이 많이 표집되었고 학년별 분포는 비교적

균일하였다. 가족의 배경변인을 보면 아버지의 학력은 고졸이하(57%)와 대졸이상(43%)이 비슷했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부분 고졸이하(73%)였다. 월평균가계소득의 분포를 보면 월 200만원 미만인 가정이 31%,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가정이 42%, 400만원 이상인 가정이 26%인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소득수준은 중상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버지의 직업계층은 중간계층이 57%로 가장 많았고, 중상계층이 16%, 근로·도시하류계층이 27%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인 경우가 49%였고, 취업모의 직업계층은 중간계층(27%)과 근로·도시하류계층(22%)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은 Levitt, Guacci-Franco와 Levitt(1993)의 'Convoy Structure Measure(CSM)'에 의한 사회적 관계망(social network) 측정방식을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세 개의 겹 원을 주고 각 원마다 부모님을 제외하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첫 번째 원)에 3명까지, '꽤 가까운 사람들(두 번째 원)에 3명까지,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들(세 번째 원)에 3명까지

<표 2>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구분				N(%)			
청소년의 개인변인	성별	남		523 (42.9)		부모의 학력	부	고졸이하		676 (57.0)			
		여		697 (57.1)				대졸이상		512 (43.0)			
		계		1220 (100.0)				계		1190 (100.0)			
	연령	중 학 생	1학년		131 (30.0)		월평균가계소득	모	고졸이하		855 (72.7)		
			2학년		162 (37.1)				대졸이상		321 (27.3)		
			3학년		144 (33.0)				계		1176 (100.0)		
		계		437 (100.0)		200만원미만		97 (11.6)					
		고 등 학 생	1학년		247 (31.5)			200~400만원미만		454 (54.3)			
			2학년		303 (38.7)			400만원 이상		285 (34.1)			
	3학년		233 (29.8)		계		836 (100.0)						
	계		783 (100.0)		부모의 직업계층 ^a	부	중상계층		175 (15.6)				
	<부모의 직업계층 분류 기준> · 중상계층: 전문직 1종, 고급공무원, 기업체 중역 이사급 임원 · 신중간계층: 전문직 2종, 일반 공무원, 기업체 중간관리직 · 구중간계층: 중소기업 경영자, 판매서비스직 1종 · 근로·도시하류계층: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판매서비스직 2,3종, 노무직, 농업, 무직 참고) 건축업·인테리어업·광고업의 경우 가계소득에 따라 300만원 이상은 전문직, 이하는 기능직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음						신중간계층		300 (26.7)				
구중간계층							343 (30.5)						
근로/도시하류계층							306 (27.2)						
계							1124 (100.0)						
모						주부		560 (49.1)		중상계층		18 (1.6)	
						중상계층		18 (1.6)		신중간계층		133 (11.7)	
						신중간계층		133 (11.7)		구중간계층		175 (15.4)	
						구중간계층		175 (15.4)		근로·도시하류계층		254 (22.3)	
						계		1140 (100.0)		계		1140 (100.0)	

a: 직업계층은 홍두승·구해근(2001)의 직업계층 분류를 기초로 하였음

지 모두 9명까지 적을 수 있도록 도식화 되어있다. 국내에서는 장영서(1997), Hyun, Lee 와 Jang(1997), Hyun 등(2002)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주변 연장자의 관계는 Beam, Chen과 Greenberger(2002)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친척(친손위형제·자매, 사촌이상 손위형제·자매, 조부모, 그 외 친척), 선배(학교, 종교단체, 동호회, 이웃의 선배), 교사(학교, 학원, 과외 교사), 인터넷의 지인(인터넷에서 교류하는 연장자)의 4가지 종류별로 나뉘어지며, 각 관계별로 세 개의 원마다 응답된 수(0~3)를 분석에 사용한다. 이에 따라 친척, 선배, 교사, 인터넷의 지인의 총 수는 각각 논리적으로 0부터 9까지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세 개의 겹 원에 전혀 응답하지 않아 총 수가 0인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1부터 9까지의 범위를 가진다.

2)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은 Barrera(1981)의 'Inventory of Socially Supportive Behaviors : ISSB'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국내에서는 윤혜정(1993), 신애현(1998), 노미순(1999)의 연구 등에서 사용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척도는 지각되는 지지의 내용 및 기능에 따라 4가지 하위영역으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정서적지지 하위영역은 사회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지지로 사랑, 공감, 이해, 신뢰 등의 제공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둘째, 평가적지지 하위영역은 인격적 존중, 칭찬 등을 통해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주는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 '내가 잘 했을 때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셋째, 정보적지지 하위영역은 진로, 복잡한 상황이나 의사결정시에 충고, 조언, 격려 등을 해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 '내게 생긴 문제의 원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준다'). 넷째, 물질적지지 하위영역은 필요시 직접적 서비스나 금전을 제공하여 도움을 주는 내용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빌려줄 것이다'). 각 문항은 청소년이 주변의 연장자로부터 지지를 얼마나 받는가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의 리커트척도로 되어있으며, 문항의 수는 영역별로 4문항씩 1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영역별 신뢰도(Cronbach α)는 .83, .79, .80, .8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사회적 지지의 신뢰도는 .93이었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고대부설 행동과학연구소(1999)가 변안본을 제시한 'Self-Esteem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긍정문항과 부정문항을 포함하여 모두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의 리커트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평가하는 자아상을 자존감의 반영으로 보고 이를 측정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상태나 인지적인 추론으로 자아개념을 파악하면서 총체적인 자기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대체로 내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등을 들 수 있다. 이 척도는 국내외 자아존중감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신애현, 1998; 윤미숙, 2000; Cauce 외, 1990; Baldwin & Hoffmann, 2002),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77로 나타났다.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win 7.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았으며, 연구문제별로 t검정, 쌍체 t검정, F검정 및 scheffe 추후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α 가 산출되었다.

III. 연구결과

1.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

청소년이 주변의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의 경향을 <표 3>과 <표 4>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청소년이 주변의 연장자 중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지각하는 사람의 수는 평균 2.28명이었는데 이는 응답할 수 있는 칸이 3개였던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청소년이 3명까지 응답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중 친척의 수는 평균 1.82명이었고, 선배의 수는 평균 .21명, 교사의 수는 평균 .20명, 인터넷 지인의 수는 평균 .05명이었다. 원이 '꽤 가까운', '어느 정도 가까운'으로 멀어지면서 청소년이 지지를 지각하는 친척의 수는 감소하고, 교사의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청소년이 친척은 가까운 연장자로 지각하는 데 비해 교사는 비교적 덜 가까운 사람으로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장자의 관계별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수와 '어느 정도 가까운 사람의 수'간의 쌍체 t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의 우측에 제시되어 있는데, 원이 멀어질수록 친척의 수는 유의하게($p<.001$) 감소하고, 교사의 수는 유의하게($p<.00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를 보면 청소년이 주변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경향의 평균치가 제시되어 있다.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지지의 양은 평균 3.9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변인 중 평가적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는 높고, 상대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경향(평균)

원의 순서 관계	가장	꽤	어느 정도	총 수	평균치 ^c	Paired t 값
	가까운 ^a	가까운	가까운 ^b			
친척의 수	1.82	1.05	.62	3.50	1.20	30.99***
선배의 수	.21	.26	.20	.94	.01	.27
교사의 수	.20	.35	.39	.66	-.19	-7.00***
인터넷지인의 수	.05	.06	.06	.18	-.02	-1.88
총 수	2.28	1.73	1.28	5.51	1.10	25.76**

참고) c=a-b로 대응 표본 평균차이값임.

*** p<.001

<표 4> 청소년이 주변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경향

	N	M (SD)
정서적 지지	1187	3.94 (.83)
평가적 지지	1186	4.00 (.76)
정보적 지지	1190	3.96 (.79)
물질적지지	1186	3.97 (.84)
총 지지	1189	3.97 (.71)

2.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의 차이

청소년의 성별, 학년, 아버지의 직업계층 등의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에 대한 분석결과를 <표 5>와 <표 6>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5>를 보면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연장자 중 친척의 수는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사회적 지지를 얻는다고 지각하는 친척의 수가 많았다. 또한 학년별로는 중학교 1, 2학년 청소년이 고등학교 2, 3학년 청소년보다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친척의 수가 많았다.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는 연장자 중 선배의 수는 아버지의 직업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중상계층인 청소년은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신중간계층이거나 근로·도시하류계층인 청소년보다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선배의 수가 많았다.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연장자 중 교사의 수는 청소년의 학년과 아버지의 직업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즉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은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보다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교사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중상계층인 청소년은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근로·도시하류계층인 청소년보다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교사의 수가 많았다.

<표 6>을 보면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평가적 지지의 양은 청소년의 성별과 아버지의 직업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주변의 연장자로부터 평가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중상계층인 청소년은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근로·도시하류계층인 청소년보다 주변의 성인으로부터 평가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적 지지의 양은 청소년의 성별과 아버지의 직업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주변의 연장자로부터 평가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중상계층인 청소년은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근로·도시하류계층인 청소년보다 주변의 성인으로부터 평가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

종속	독립	N	M	t/F	Scheffe	
친척의 수	성별	남	523	3.73	2.78*	
		여	697	3.32		
	학년	중1	131	4.28	8.10***	A
		2	162	4.05		A
		3	144	3.82		A B
		고1	247	3.50		A B
		2	303	3.03		B
		3	233	3.09		B
	부의 직업계층	중상계층	175	3.37	.20	
		신중간계층	300	3.53		
		구중간계층	343	3.53		
		근로·도시하류계층	306	3.47		
선배의 수	성별	남	523	.95	.03	
		여	697	.94		
	학년	중1	131	.73	1.00	
		2	162	.94		
		3	144	.90		
		고1	247	.94		
		2	303	1.08		
		3	233	.93		
	부의 직업계층	중상계층	175	.126	3.54*	A
		신중간계층	300	.86		B
		구중간계층	343	.95		A B
		근로·도시하류계층	306	.80		B
교사의 수	성별	남	523	.60	-1.87	
		여	697	.72		
	학년	중1	131	.87	4.00**	A B
		2	162	.75		A B
		3	144	.89		A
		고1	247	.63		A B
		2	303	.50		B
		3	233	.60		A B
	부의 직업계층	중상계층	175	.89	4.51**	A
		신중간계층	300	.72		A B
		구중간계층	343	.66		A B
		근로·도시하류계층	306	.52		B
인터넷지인의 수	성별	남	523	.20	.61	
		여	697	.17		
	학년	중1	131	.12	.66	
		2	162	.19		
		3	144	.27		
		고1	247	.18		
		2	303	.16		
		3	233	.17		
	부의 직업계층	중상계층	175	.14	.60	
		신중간계층	300	.17		
		구중간계층	343	.23		
		근로·도시하류계층	306	.18		

* p.05, ** p<.01, *** p<.001

<표 6>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

종속	독립		N	M	t/F	Scheffe	
정서적 지지	성별	남	503	3.89	-1.15		
		여	684	3.98			
	학년	중1	131	4.02	1.43		
		2	160	3.86			
		3	143	3.92			
		고1	231	3.88			
		2	292	3.93			
	3	230	4.04				
	부의 직업 계층	중상계층	172	4.03	1.51		
		신중간계층	291	3.95			
구중간계층		336	3.98				
근로·도시하류계층		297	3.88				
평가적 지지	성별	남	503	3.94	-2.86**		
		여	684	4.04			
	학년	중1	131	4.12	1.84		
		2	160	3.90			
		3	143	3.94			
		고1	231	3.97			
		2	292	4.07			
	3	230	4.00				
	부의 직업 계층	중상계층	171	4.14	2.73*	A	
		신중간계층	291	4.01			A B
구중간계층		336	4.01	A B			
근로·도시하류계층		297	3.93	B			
정보적 지지	성별	남	503	3.93	-1.83		
		여	684	3.99			
	학년	중1	131	4.10	3.15**	A	
		2	160	3.82			B
		3	143	3.91			A B
		고1	231	3.90			A B
		2	292	3.98			A B
	3	230	4.06	A B			
	부의 직업 계층	중상계층	173	4.14	6.48***	A	
		신중간계층	291	4.02			A B
구중간계층		336	4.02	A B			
근로·도시하류계층		298	3.83	B			
물질적 지지	성별	남	503	3.88	-2.29*		
		여	684	4.03			
	학년	중1	131	3.97	2.16*	NS	
		2	160	3.84			
		3	143	3.93			
		고1	232	3.91			
		2	292	4.00			
	3	228	4.09				
	부의 직업 계층	중상계층	172	4.03	1.68		
		신중간계층	289	3.90			
구중간계층		336	4.04				
근로·도시하류계층		297	3.96				
총 지지	성별	남	505	3.91	-2.37*		
		여	684	4.01			
	학년	중1	131	4.06	2.52*	NS	
		2	161	3.85			
		3	143	3.92			
		고1	233	3.91			
		2	292	3.98			
	3	229	4.06				
	부의 직업 계층	중상계층	173	4.08	2.88*	A	
		신중간계층	291	3.98			A B
구중간계층		336	4.01	A B			
근로·도시하류계층		297	3.90	B			

* p<.05, ** p<.01, *** p<.001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정보적 지지의 양은 청소년의 학년과 아버지의 직업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중학교 1학년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 청소년보다 주변 성인으로부터 정보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아울러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중상계층인 청소년은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근로·도시하류계층인 청소년보다 주변의 연장자로부터 정보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총 지지의 양은 청소년의 성별과 아버지의 직업계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주변의 연장자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중상계층인 청소년은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근로·도시하류계층인 청소년보다 주변의 연장자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경향과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에 대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의 상단을 보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4점 척도에서 평균 2.64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중상계층, 신중간계층, 구중간계층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근로·도시하류계층인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기능적 특성의 설명력

청소년이 주변의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특히 청소년의 배경변인,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과 기능적 특성간의 상대적인 설명력은 어떠한지를 규명하기 위해 위계적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8>로 제시하였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학년과 아버지의 직업계층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학년이 높을수록($\beta = -.089$)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중상계층인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며($\beta = .093$),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근로·도시하류계층인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beta = -.092$)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이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연장자중에 인터넷에서 만난 지인의 수가 많을수록($\beta = -.117$)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경향과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기술통계치	N	M	SD	(Min, Max)
			1216	2.64	.47	(1.18, 4)
종속	독립		N	M	t/F	Scheffe
	성별	남	522	2.69	3.35**	
		여	694	2.60		
자아존중감	학년	중1	131	2.78	2.81*	A
		2	162	2.63		A B
		3	144	2.62		A B
	부의 직업계층	고1	247	2.65	A B	A B
		2	301	2.60		B
		3	231	2.64		A B
	중상계층	중상계층	175	2.76	11.85***	A
		신중간계층	300	2.70		A
		구중간계층	342	2.65		A
		근로·도시하류계층	306	2.52		B

* p<.05, *** p<.001

<표 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배경변인, 사회적 지지의 구조와 기능의 설명력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학년 ^a		-.02	-.09	-.02	-.08	-.02	-.087	-.00	-.023	-.00	-.00	-.00	-.01
		7	5	4	6	7		7		2	5	5	7
배경변인	중상계층여부 ^b	.109	.093	.114	.098	.121	.104	.032	.023	.026	.011	-.00	-.00
												7	5
	근로계층여부 ^b	-.13	-.12	-.13	-.13	-.11	-.113	-.14	-.135	-.13	-.12	-.13	-.12
		0	7	4	0	6		6		9	9	6	6
사회적 지지의 구조	친척의 수			-.00	-.01	-.00	-.034			.009	.045	.005	.028
				3	6	6				-.00	-.01	-.01	-.05
	선배의 수			-.01	-.05	-.01	-.055			3	1	6	1
				4	1	6					.086		
	교사의 수			.009	.020	.013	.030			.036		.026	.061
	인터넷			-.06	-.11	-.06	-.131			-.03	-.05	-.03	-.04
				0	7	7				7	0	2	3
	지인의 수						-.131						
사회적 지지의 기능	정서적 지지					.117	.205					.070	.120
						-.10						.047	.074
	평가적 지지					5	-.170						
						-.01	-.027					.016	.027
	정보적 지지					6							
						.081	.151					.030	.053
	물질적 지지												
상수		2.820		2.840		2.565		2.671		2.603		1.992	
Adj R ² (R ²)		.038**(.044)		.045(.059)		.082***(.104)		.017**(.022)		.022(.033)		.072***(.089)	
Adj R ² 증가량(partial F)				.015(1.95)		.044***(.5.63)				.011(1.80)		.056***(.9.35)	
D-W 계수						1.977						1.901	

1) a: 학년은 중

1부터 3까지를 1부터 6으로 부여하여 분석하였음.

b c: 부의 직업계층은 중상계층, 중간 계층(구중간, 신중간 통합), 근로/도시하류계층으로 범주화한 후 중상계층여부(중상계층=1, 기타=0), 근로/도시하류계층여부(근로/도시 하류계층=1, 기타=0)으로 가변인화 하였음.

* p<.05, ** p<.01, *** p<.001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이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남자 청소년이 주변의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정서적지지의 양이 많을수록($\beta=.172$), 평가적 지지의 양이 많을수록($\beta=.210$), 물질적 지지의 양이 많을수록($\beta=.164$)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회귀단계에서 남자 청소년의 학년변인($\beta=-.089$),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중상계층인지의 여부 변인($\beta=.108$), 인터넷 지인의 수 변인($\beta=-.129$)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의하게 남아있었으며 이들 세 변인의 총 설명분량은 6.2%였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학년과 아버지의 직업계층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근로·도시하류계층인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beta=-.104$) 나타났다. 다음 단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특성이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설명력이 있는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특성이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주변의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정서적지지의 양이 많을수록($\beta=.111$)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회귀단계에서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중상계층인지의 여부 변인($\beta=-.099$)의 영향력은 여전히 유의하게 남아있었으며 이들 세 변인의 총 설명분량은 5.5%였다.

종합하면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학년,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중상계층인지의 여부, 인터넷 지인의 수, 정서적, 평가적, 물질적 지지의 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비교하여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근로·도시하류계층인지의 여부와 정서적 지지의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변의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와 기능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들 변인이 청소년의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며, 이들 변인이 배경변인과 더불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보는 것이었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지각한다고 응답한 주변의 연장자를 관계별로 살펴보면 친척의 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선배의 수, 교사의 수, 인터넷에서 만난 연장자의 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지각을 표시하는 원이 멀어질수록 청소년이 지지를 지각한다고 응답하는 친척의 수는 감소하였으며 대신 교사의 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중학교 청소년은 고등학교 청소년

보다 지지를 지각한다고 응답한 친척의 수와 교사의 수가 많았다. 이는 청소년이 다른 관계의 연장자보다 친척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삶에 있어 교사의 중요성이 아동기보다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추측된다.

둘째, 남자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지지를 지각한다고 응답한 친척의 수가 많았다. 이에 비해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주변 연장자로부터 평가적 지지와 물질적 지지를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사회적 관계망이 더 넓다는 Bryant(1985)의 연구, 여아는 남아보다 또래 친구에게서 지지를 구하고 더 빈번하게 접촉하며 이들에게서 다양한 지지를 받는다는 Colarossi(2001)의 연구결과와 일관된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남자 청소년의 경우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주변 연장자의 수가 많은데 비해 여자 청소년의 경우 지지의 기능적 측면에서 주변연장자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지지더 지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중상계층인 청소년은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근로·도시하류계층인 청소년보다 지지를 지각한다고 응답한 선배, 교사의 수가 많고, 주변 연장자로부터 평가적, 정보적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중상계층인 청소년은 가족, 친척, 선후배, 교사 등 다양한 관계의 연장자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기 쉬운데 비해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근로·도시하류계층인 청소년은 사회적 지지를 구할 주변 연장자가 부족하고 아울러 이들로부터 전달받는 사회적 지지의 양도 적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넷째,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여자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중상계층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근로·도시하류계층인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남아의 자아존중감이 여아보다 높았던 Baldwin과 Hoffmann(2002)의 중단연구자료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들의 자료에서 남아의 자아존중감은 중학교 때보다는 고등학교 때 저조해지기는 해도 비교적 고르게 향상되는 반면 여아의 자아존중감은 중·고등학교에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계속 하락하다가 20세가 지나서야 급격히 상승하였다. 또한 Baldwin과 Hoffmann(2002)는 청소년의 생애경험과 가족응집력 등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높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를 일부 지지해준다.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높은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생애경험에서 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이 낮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하여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 것인바,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청소년이 주변의 성인으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 및 기능 변인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일정부분 설

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신애현, 1998; 오현숙, 2000; 윤미숙, 2000)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변인의 설명력을 살펴보는 않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 관련 변인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명력은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주요 근원인 부모 및 또래를 제외하고 청소년 주변의 연장자만으로 국한시켜 연구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본 연구는 부모, 또래 외에 청소년이 주변의 성인으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도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 주었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여섯째,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학년, 아버지의 직업계층, 인터넷 지인의 수, 정서적, 평가적, 물질적 지지의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낮을수록,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중상계층인 청소년이, 지지를 받는다고 밝힌 주변의 연장자 중 인터넷 지인의 수가 적을수록, 주변 연장자로부터 여러 가지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아버지의 직업계층, 정서적 지지의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근로·도시하류계층이 아닌 여자 청소년이거나, 주변 연장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여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졌다.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신중간층인 남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높을수록 가족의 기능이 순기능적이고 이에 따라 청소년의 생태학적 환경은 좋아진다는 Meyers, Varkey 및 Aguirre(2002)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근로·도시하류계층인 여자 청소년은 비교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버지의 직업계층이 낮은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가 적다는 앞의 결과와 함께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하겠다. 오승환(2001), Leinonen, Solantaus와 Punamaki(2002)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나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와 이를 통한 부모 양육태도의 건전화, 가족 응집성, 청소년의 대처능력 향상 등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Demaray와 Malecki(2002)는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경우 고위험군 청소년의 부적응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청소년의 경우 주변 연장자나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를 구할 수 있는 범위가 오히려 좁다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계층이 낮은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이들이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남녀 청소년 모두 주변인으로부터 지각하는 정서적 지지의 양이 이들의 자아존중감을 일정부분 설명해주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 중 정서적 지지와 가장 높은 상관성이 있었다는 윤미숙(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여자 청소년의 경우 배경변인 외에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요소를 추가한 2단계 회귀분석에서 지지를 지각하는 교사의 수가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나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요소를 추가한 3단계 회귀분석에서는 교사 변인의 설명력이 사라지고 대신 여자 청소년이 지각하는 정서적 지지의 양이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의 경우 주변 연장자 중 누구로부터 지지를 지각하는가의 여부보다는 주변 연장자로부터 사랑, 공감, 이해, 신뢰 등의 정서적 지지를 지각하는 것이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니기 사료된다.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지각할수록 이들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적인 요소로 중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주연의 연구(2001)에서 통시중독 경향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하는 수준이 낮았다.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가깝다고 응답한 주변 연장자 중 인터넷 지인의 수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낮았는데, 이는 청소년이 친척, 선배, 교사와 대면접촉을 통해 직접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보다 인터넷에서의 상호교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을 통해 굳건해지는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기 때문일 수 있으며,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들과의 대면 접촉보다는 가상 현실인 인터넷에서의 상호작용에 더욱 몰입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에 이르면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고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이 중요한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을 밝히는 연구를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Beam 외, 2002; Cicognani & Albanesi, 2001; Benjamin 외, 1994)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해준다.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확대하여 주변 연장자와의 교류를 시작할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기에는 연장자와의 관계가 교사, 코치, 상담가와 같은 공식적 관계로 제한되기 쉽다(Benjamin 외, 1994).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가깝다고 지각하는 주변 연장자의 특성을 친척, 선배, 교사 등 관계적 특성에 의해 분류해보는데 그쳤다. 추후 연구에서는 같은 연장자라도 청소년이 이들과의 관계 및 이들로부터 얻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들이 청소년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면접 등을 통하여 보다 세심하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관계망 구성원들은 중심된 개인과 우호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반대와 간섭에 의해서 갈등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원효중·옥선화, 2002).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기능을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순기능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회 관계망 구성원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순기능적, 역기능적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지 복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 진입하면 아동기보다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봄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근원이 부모, 친구 외 다양한 관계에서 나타나며 이들 변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일정부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주변 연장자와 발전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양질의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또 상대방에게도 사회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청소년 적응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일 : 2002년 11월 15일
- 심사 일 : 2002년 11월 20일
- 심사 완료일 : 2003년 3월 28일

【참고문헌】

고대부설 행동과학연구소(1999). 심리척도핸드북. 서울: 학지사.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지형(2002). 청소년의 인터넷중독경향에 따른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지지에 대한 지각 비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노미순(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진아(2001). 청소년의 지각된 사회적지지 및 자기효능감과 우울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신애현(1998).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돈균(1998).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오승환(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오현숙(2000).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기 존중감 및 공격성의 관계.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원효중·옥선화(2002). 가족의 사회관계망 유형화 연구:도시 핵가족 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49-164.
 윤미숙(2000).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경주(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난영(2001).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심리.사회적지지 비교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주연(2001). 일반 청소년과 통신중독 경향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과 자아정체감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장영서(1997).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본 아동기의 사회적 지지 : Social convoy model을 토대로.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홍두승·구해근(2001). 사회계층급론. 서울 : 다산출판사.
 Baldwin S. A. & Hoffmann, J. P.(2002). The dynamics of self-esteem: A growth-curve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2), 101-113.
 Beam, M. R., Chen, C. S., & Greenberger, E. (2002). The nature of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their "very important" nonparental adul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0(2), 305-325.
 Benjamin, H. G & Sylverstre, J. C. (1994). Social support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older adolescents and adults. In F. Nestmann & K. Hurrelmann(Ed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pp. 53-74). NY:Walter de Gruyter.
 Bryant, B. K. (1985). *The neighborhood walk : Sources of support in middle childhood*. SRCD :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Cauce, A. M., Reid, M., Landesman, S., & Gonzales, N. (1990). Social support in young children : Measurement, structure, and behavioral impact. In B. R. Sarason, I. G. Sarason, & G. R. Pierce(Eds.), *Social support : An interactional view*(pp.64-94). NY:Wiley.
 Colarossi, L. G. (2001). Adolescent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Structure, function, and provider type, *Social Work Research*, 25(4), 233-241.
 Demaray, M. K. & Malecki, C. K.(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for students at risk. *Psychology in The Schools*, 39(3), 305-316.
 Esposito, C. L. & Clum, G. A.(2002). Social support and problem-solving as moder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and suicidability: Applications to a delinquent popula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2), 137-146.
 Frydenberg, E. & Lewis, R.(2000). Teaching coping to adolescents: When and to whom?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7(3), 727-745.
 Ho, S. M. Y. & Lee, T. M. C.(2001). Computer usage and its

- relationship with adolescent lifestyle in Hong Ko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9(4), 258-266.
- Hyun, O. K., Lee, W. J., Jang, Y. S. (1997). Convoys of Social Support in Childhood : Its Structure Analysed by Relationship Categories. *9th ARAHE proceeding*, p.60.
- Hyun, O., Lee, W., Yoo, A., Cho, B., Yoo, K., Miller, B. B., Schvaneveldt, J. D., & Lau, S.(2002). Social support for two generations of new mothers in selected populations in Korea,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23(4), 515-527.
- LeBuffle, P. A. & Naglieri, J. A.(1999). *Devereaux Early Childhood Assessment*. NC : Kaplan Press.
- Levitt, M. J., Guacci-Franco, N., & Levitt, J. L. (1993). Convoys of social support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Structure and fun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5), 811-818.
- Luthar, S. S., Cicchetti, D., & Becker, B. (2000). The construct of resilience : A critical evaluation and guidelines for future work. *Child Development*, 71(3), 543-562.
- Meyers, S. A., Varkey, S., & Aguirre, A. M. (2002). Ecological correlates of family functioning.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0(3), 257-273.
- Miyamoto, R. H., Hishinuma, E. S., Nishimura, S. T., Nahulu, L. B., Andrade, N. N., Goebert, D. A., & Carlton, B. S. (2001). Path models linking correlates of self-esteem in a multi-ethnic adolescent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31(5), 701-712.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NY: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 Basic Books. NY.
- Shek, D. T. L. (2002). The relation of parental qualities to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with economic disadvantag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0(3), 215-230.
- Wadsworth, M. E. & Compas B, E.(2002). Coping with family conflict and economic strain: The adolescent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2(2), 243-274.
- Wentzel, A. P. & Watlins, J. D. (2002). Ecological correlates of family functioning.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0(3), 257-273.